

신도교육의 해... 바른신행 기대

조계종을 중점사업은 무엇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범위 확대키로

'불교 21세기' 구성 등 중장기계획 수립

조계종은 '전법의 해' 2년차인 올해를 신도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신행의 질적 향상을 주도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3일 5대 기초 6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금년 중무계획을 밝히며 신도교육과 관련한 구체적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월주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통일된 신도 교육교재를 발간하고 지역 연합 교육기관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단위 사찰별 로도 신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계종이 신도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종단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간 종단 교육불사가 승가교육에 집중되어 있던 점에 비해 상당히 발전적인 중점 제시한 점을 받고 있다. 조계종의 신도교육사업전개는 신도제작사활가운 등의 지속화와 함께 신행의 새로운 모범 제도로 자리잡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교육의 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보다 세부적인 지침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조만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올해 종단의 중장기적인 비

전과 전망을 담은 종단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21세기를 향한 종단의 진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에 '불교21세기위원회'를 상설 기관으로 구성, 종단 행정의 체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불교문화 창달을 위한 종단적 노력도 계속 될 전망이다. 사신영양의 해 관련사업도 불교전통문화의 부각에 초점을 맞춰 기획했다.

이와함께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종단적 노력은 사찰환경 보존관련 입법활동을 통한 제도적인 장치 확보로 풀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범위를 확대, 중앙본부의 구성과 지역별 계층별 조직체계를 다지며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영농법인 설립과 대안학교 설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불교적 동참, 사회 복지 시설의 수탁 운영, 해외 사찰 및 포교당의 실질적 관리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등도 조계종의 위상제고와 대사회적 역할 강화 사업으로 주목 된다.

임연태 기자

◇ 조계종 '98 주요중무계획

중점사업	세부사업
종단발전 5개년 계획수립, 불교21세기 위원회구성, 중무행정 민원인내책자발간, 본광사중무행정 프로그램개발, 종단 문화개발, 불교종교협력사업, 사찰부동산 환원법인 모색	종단발전 5개년 계획수립, 불교21세기 위원회구성, 중무행정 민원인내책자발간, 본광사중무행정 프로그램개발, 종단 문화개발, 불교종교협력사업, 사찰부동산 환원법인 모색
포교전담활동강화와 신도교육체계화	신도교육의 해 선포, 포교사조직설립, 포교지침서 배포, 군포교황성화방안모색, 신행체계화 연구사업추진, 관광사찰포교사업 모색
승중진작과 승가교육 내실화	수계신입교제방안, 행자교육강화, 기본교육기관평가, 교육지도자회의 개최, 선원총담 발간, 화일경향담 발간
전통문화계승 및 새로운 불교문화창달	사지현황조사, 비록사 환원사업 지원, 성보관리자연수, 성보보존관련법제정, 장부 문화유산 증액교섭, 무형문화재 산재조사, 민족문화교육 교과과목 반영, 사지현황의 해 기념 사업, 불교방송제작방안 확충
동원시대 대비 및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지역불교환경회의 개최, 사찰환경 피해사례집 발간, 공원(가정)포교지 추진, 계사중앙본부 구성, 연방사무소 개설, 북한사찰지원 기초위원회 구성, 불입기금조성사업, 생활협동운동 전개, 경제위기극복방안실천, 국제교류활성화

승가대 매년미달 '위상 흔들'

사미(니)들 동국대·강원대 선호

종단 의무교육기관 지정 '해결책'

중앙승가대가 96년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한 이후 또다시 미달사태를 빚음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97년 4년제 대학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로 인가받은 이래 계속된 미달사태는 승가교육의 중심도약을 표방했던 조계종단의 교육지표는 물론 자치 중앙승가대의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중앙승가대에는 각 30명정원의 4개학과에 불교 21명·역경 6명·포교사 14명·사회복지 30명이 지원해 3개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미달사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조계종 교육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다. 강원, 동국대 등과 함께 종단기독교육기관으로 돼있어 굳이 중앙승가대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문제만이 아닌 은사스님

들의 강원대·동국대·강원대 위상, 인원수급, 학비부담 등 복합적인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책을 쉽게 제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중앙승가대의 신입생 유지와 학과 홍보에 따른 노력부족, 학문연구를 고려하지 않은 학부과정으로는 부적절한 역경학과 설치, 건실한 학풍 결여, 상대적으로 동국대보다 낮은 위상 등 원인은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원 교육부장 함적스님은 미달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며, 우선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과 은사스님들의 인식전환 등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작년 3.4대에 비해 올해 6.65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입시경쟁률. 96.97년 연속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 최우수대학 선정, 9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선정. 여기에 국내대학으로서 처음으로 정보보호 및 국제해양정책의 전문가를 양성할 국제정보대학원 3월 개원.



동국대가 바뀌고 있다. 타대학과의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와 일산캠퍼스 건립 등 앞으로 진행될 '동국대변'에 대해 송석구 총장에게 들었다.

- 동국대가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 그렇습니다. 95년 취임 이래 '꼭 바뀌지 않으면 주저앉고 만다'고 끊임없이

수요 인터뷰

국제정보대학원·전자불전원 개원 동국대 송석구 총장

"역동적인 대학 만들어야죠"

강조해왔습니다. 학생들이 동국대를 선호하고, 세계속의 대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변화는 백여년 가까이 이어온 역사위에 전하던 문화의 분위기를 접목시키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국대는 변했고 앞으로도 더욱 변할 것입니다. 불교대학이념의 정신적 바탕위에 발로 뛰는 역동적인 대학, 그것이 바로 오늘의 동국대라고 자부합니다.

- 국제정보대학원의 특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 설립취지는 세

계화와 정보화로 대변되는 21세기의 주역양성입니다. 이는 '참사람 열린 교육'을 모토로 한 동국대의 교육개혁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국제정보대학원은 석사과정의 국제해양정책, 정보보호, 국제관계학 등 3개 학과로 구성됩니다. 국내 발전이 더딘 해양 국제협상등의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게 되며, IMF재정위기를 계기로 국제화 전문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해진 만큼 기대가 큼니다. 대학이 국가발전이 필요할 인재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배출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 올해에도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선 5월중에 일산에 제3캠퍼스 건립을 위한 공사에 착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캠퍼스 건립이 아닌 이공관련대학을 통합한 '테크노 파크'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과 양방을 통합한 협진체제의 1천병상 규모 불교종합병원도 들어서게 됩니다. 또 연극과 영상분야도 전문화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한 훌륭한 교수초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3월에 개원하게 될 전자불전연구소(가칭)

5월 일산캠퍼스 착공

21세기 정보화 주역 양성

는 한국불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화해 국내·외에 제공, 새로운 포교기지를 건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개인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 남은 임기 1년여동안 종단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동국대를 세계속의 대학으로 만드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동국대가 바뀌는 것은 곧 재가 바뀌고 발전하는 것이니 다름없으니까요. 다만 3년동안 일에만 매달리다보니 수행할 여유가 없었는데 올해는 건강과 불발수행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우 기자

나라안이 뒤송송하다. 대담하게 천정을 뚫고 들어가 은행 금고와 금은방을 털 도둑이 있는가하면 6개월된 아들 분유값을 마련하려고 고물상 물건을 훔치다 구속된 중도독도 생겼다. 은행밖에 쪼들린 어느사대리는 부잣집을 털려고 압구정동 H 아파트를 오르내리다 붙잡혔다.

"죽어가는 중소기업이 통곡합니다."

어느 시계회사 직원들은 붓집장사를 해서라도 회사를 살리겠다고 거리로 나섰다.

가슴아프고 눈물겨운

사건들이 연

일 꼬리를

들고, 한편에

선 나라를 살리려는 서민들의 '금모으기' 줄이 이어지고 있다.

나라가 위기를 맞게되니 국민은 애국심을 일으켜 나라사랑을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부자들은 골짜기도 안하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의 '금모으기 운동'에 부자동네인 서초·강남·송파구는 미온적이고, 구로·동대문·영등포구등 서민층이 주로사는 지역은 참여열기가 높게 나타났다. IMF 한파속에서 서민층은 휘청거리는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나라사랑 대열에 서고있

다. 가진자들은 예금이자율 높아 좋고, 골프장·스키장 붐비지 않아 좋아한다니 한심하기만 하다.

IMF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자들이 나라 걱정을 뒤로하고 서민들의 생활고를 면산 바라보듯하면 결국 빈부차이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화합은 커녕 부자들을 노리는 크고 작은 도둑이 자꾸 늘어나 사회는 불안해 질 것이다.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내용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종교지도자들이 14일 김차기대통령에게 요청한 말이다.

옛날 재물이 이 해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한편에

은 한 장자가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재산을 상속해 오듯 선행도 대를 이어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그 장자는 재산을 넷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재산으로는 이자를 돌려 가업을 유족하게 했고 한부분으로는 일용품을 공급했다.

다른 한 부분은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게 주어 복을 뒤었다. 남은 한 부분은 친척과 나그네를 구제했다. (心地經)

요즘같은 때 가진사람들이 배워야 할 돈 쓰는 법이다.

목어

돈쓰는 법

이 해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한편에

은 한 장자가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재산을 상속해 오듯 선행도 대를 이어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그 장자는 재산을 넷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재산으로는 이자를 돌려 가업을 유족하게 했고 한부분으로는 일용품을 공급했다.

다른 한 부분은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게 주어 복을 뒤었다. 남은 한 부분은 친척과 나그네를 구제했다. (心地經)

요즘같은 때 가진사람들이 배워야 할 돈 쓰는 법이다.

목어

돈쓰는 법

이 해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한편에

은 한 장자가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재산을 상속해 오듯 선행도 대를 이어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그 장자는 재산을 넷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재산으로는 이자를 돌려 가업을 유족하게 했고 한부분으로는 일용품을 공급했다.

다른 한 부분은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게 주어 복을 뒤었다. 남은 한 부분은 친척과 나그네를 구제했다. (心地經)

요즘같은 때 가진사람들이 배워야 할 돈 쓰는 법이다.

목어

돈쓰는 법

이 해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한편에

은 한 장자가 있었다. 그 집은 대대로 재산을 상속해 오듯 선행도 대를 이어 멀리까지 명성이 자자했다. 그 장자는 재산을 넷으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재산으로는 이자를 돌려 가업을 유족하게 했고 한부분으로는 일용품을 공급했다.

다른 한 부분은 고아와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게 주어 복을 뒤었다. 남은 한 부분은 친척과 나그네를 구제했다. (心地經)

요즘같은 때 가진사람들이 배워야 할 돈 쓰는 법이다.

목어

돈쓰는 법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현근, 조계사 주지)가 거둔다. 파라미타는 12일 총재 성타스님, 회장 현근스님, 사무총장 성수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회장중심체제'로의 전환을 피하고 새 출발했다. 조계종 포교원 전결 업무처리 방식에서 회장 책임중심체제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지적돼 왔던 비효율적의 사절정 구조와 승가일책의 일원진, 회장·이사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기형적 구조개선을 모색, 명실상부한 청소년단체로서 제2의 도약을 마련한 것이다. 포교원은 이에따라 파라미타의 서면보고에 대한 검토와 감사기능만을 갖게 됐다. 또 포교원-파라미타간의 관계 정립을 위해 파라미타 설치령과 산하단체 관련 규정법 등을 통해 법적 기구화 한다는 복안이다.

96년 조계종단의 열망을 한몸에 안고 출범한 파라미타는 조직운영과 이를 둘러싼 재정적 취약성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2년여 동안 불교청소년의 전국조직망 구성을 지향했던 파라미타가 6백30개의 불교학생회와 3만명의 불교청소년 중 4개의 지부와 지회, 180개 분회 1만명의 청소년을

확보하는데 그친 점과 31명의 이사 중 96년 7명, 97년 5명만이 회비를 납부한 점 등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회회복의 결단을 필요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총재 성타스님이 지난해 교포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에서 회장 현근스님에게 회

장 중심체제로 구조조정을 간곡하게 권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2(공인회계사 건물)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현근스님은 "그동안 파라미타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제도 정착을 못했을 뿐"이라며 "이사진의 폭넓은 영입과 적극적인 참여유도, 포교원과 유기적인 관계 설정으로 전일보호는 청소년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교회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명실공히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단체로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필)

파라미타 "회장중심 체제로"

비효율적 의사결정 개선 '재도약'

설치령·산하단체 규정법등 추진

확보하는데 그친 점과 31명의 이사 중 96년 7명, 97년 5명만이 회비를 납부한 점 등은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전회회복의 결단을 필요로 했다. 이 과정에서 총재 성타스님이 지난해 교포에서 열린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에서 회장 현근스님에게 회

장 중심체제로 구조조정을 간곡하게 권유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2(공인회계사 건물)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현근스님은 "그동안 파라미타는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제도 정착을 못했을 뿐"이라며 "이사진의 폭넓은 영입과 적극적인 참여유도, 포교원과 유기적인 관계 설정으로 전일보호는 청소년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교회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명실공히 불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단체로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필)

1998학년도 東邦佛敎大學 신입생 모집요강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 바랍니다.

● 모집 과정 및 학과

- 가. 대학과정
 -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 2) 법학과 : 00명
 - 3) 불교미술과 : 00명
- 나. 관직자과정 : 00명

●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가. 대학과정
 - 1) 신입생
 -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나) 강원 사교과 이상의 구료자
 - 다) 태고종단 건부의 추천을 받은 자
 - 2) 2·3학년 편입생(기존의 과정이 4년제이므로 편입 가능)
 - 가) 본 대학 2년 수료자
 - 나) 강원 대학교 수료자
 - 다) 정규대학 졸업자
 - 라)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 나. 관직자과정
 - 1) 교임 및 사찰 관리인, 승려 권속 및 신도회 건부
 - 2) 태고종단 건부의 추천을 받은 자
 -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 전형방법

-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 나. 관직자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8년 1월 19일(월) ~ 2월 20일(금)
(평일은 10:00 ~ 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 휴무)

● 전형일자

: 1998년 2월 22일(일) 10:00~17:00

● 제출서류

- 가. 대학과정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 7) 반명함판 사진 6매
- 나. 관직자과정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지지증명서 1부

● 전형료

: ₩30,000 (불교 미술과는 ₩40,000)

● 참고사항

- 가. 본 대학 이수자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2년제는 대선, 4년제는 중덕)를 풀수케 함.
- 나. 강의시간
 - 1) 대학과정은 주로 오후 1시~5시 사이이나, 전공과목은 오전(불교미술과)과 야간(법학과)에 개설함
 - 2) 관직자과정은 매주 월·화요일 오후 5시~8시 30분 사이에 강의함
- 다. 기숙사 운영 (지방학생 문의 바람)
- 라.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 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 마.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2·3학년에 편입토록 함
- 바.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가. 본 대학 교학처 ☎ 763-0229, 8536
- 나. 태고종 총무원 ☎ 745-2030~2
- 다. 태고종단 각 교구 중무원
- 라. 경서원 ☎ 733-3345